서울역사박물관 '아우슈비츠 앨범展'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유대인 강제 수용 과정

살해 장면 없지만 유추로 잔악함 알 수 있어

서울역사박물관은 주한 이스라엘대사와 함께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맞이해 '아우슈비츠 앨범 : 아우슈비츠 지구의 한 장소'(The Auschwitz Album : Auschwitz A Place On Earth)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29일 오후 7시에 개막했다. 전시는 30일부터 3월 22일까지 개최한다.

홀로코스트(또는 쇼아 SHOAH-히브리어로 '대재앙'을 뜻함)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을 비롯한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등 약 1000만 명의 사람을 학살한 사건을 일컫는다. 사망자 중 유대인은 약 600만 명으로 당시 유럽에 거주하던 유대인의 약 60%가 희생됐다.

유엔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가 해방된 1945년 1월 27일을 기념하기 위해 2005년 유엔 총회에서 이날을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로 지정했다.

이번 전시는 이스라엘 야드 바쉠 박물관(Yad Vashem - The World Holocaust Remembrance Center)에 소장돼 있는 '아우슈비츠 앨범'을 통해 20세기 최대의 대학살로 꼽히는 홀로코스트의 잔혹함을 서울 시민들에게 알리고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육하는데 목적이 있다.

앨범의 사진은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Auschwitz-Birkenau)에 도착하는 유대인들이 거쳐야만 했던 강제 수용의 과정을 시간의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다.

유대인들을 태운 화물 기차가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유대인들은 남자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로 구분됐다. 백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 중 약 구십만 명은 도착 즉시 살해됐고 나머지는 강제 노역자로 수감됐다. 유대인들은 가지고 온 소지품은 모두 나치에게 몰수당해 독일에서 사용하도록 보내졌다.

앨범에는 실제 살해 장면을 담고 있는 사진은 한 장도 없다. 하지만 사진의 장면들에는 홀로코스트의 참혹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릴리는 1960년대 아우슈비츠에서 근무했던 나치 전범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앨범을 증거물로 제출하였다. 1980년 이 앨범이 영원히 보관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야드 바쉠 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전시 관람 1~2월은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토·일·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 3월은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토·일·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7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뉴스1

수년 저금한 돈 잃어버린 할머니…새내기 순경 집념에 되찾아

수 년간 저금해둔 돈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했던 70대 할머니가 새내기 순경의 끈질긴 집념덕에 돈을 되찾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3시45분쯤 부산 북구 금곡파출소로 '설 연휴동안 집안에 두었던 2000만원이 없어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다액 도난사건으로 판단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관이 집에 도착하자 A씨(70대 여성)는 잃어버린 돈을 찾아달라고 애타게 부탁했다.

지난 3년동안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꼬박꼬박 저금을 하면서 모아온 전 재산이었다.

김새봄 순경은 A씨를 안심시키고 돈을 기존에 보관하고 있었던 위치와 경위를 하나씩 확인했다.

A씨는 설 연휴 전에 적금을 되찾아 양말 속에 넣어 서랍장에 보관했다고 경찰에 이야기했다.

김 순경 등 출동한 경찰관들이 서랍장을 모두 뒤졌지만 돈은 나오지 않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김 순경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다른 4단 서랍장을 열어봤지만 돈은 나타나지 않았다.

평소 홀로 거주하는 A씨의 사정을 잘 알고있었던 김 순경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서랍 밑바닥부터 살펴보기 시작했다.

김 순경은 바닥 틈 사이로 손전등을 비췄고 언뜻 물체가 보이자 손을 집어넣어 끄집어냈다.

양말 속에 들어있던 흰 봉투를 열어보자 할머니가 잃어버린 2160만원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김 순경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할머니는 그제야 웃음을 되찾았다.

김 순경은 이날 "작은 노력으로 할머니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뉴스1

얼음 부족한 화천산천어축제, 대안책 '얼음 대낚시' 개장

얼음이 충분히 얼지 않아 고민에 빠졌던 강원 화천군이 화천산천어축제 얼음낚시 대안으로 '얼음 대낚시'를 고안해 1일 첫 운영에 들어갔다.

얼음 대낚시는 물가에 철제 부유 구조물을 길게 엮어 만든 폰툰에 올라가 얼음낚시를 즐기는 방식이다.

2월 첫 주말을 맞아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폰툰 위에 올라가 낚시하며 얼음낚시의 아쉬움을 뒤로했다.

화천군은 얼음낚시 묘책으로 배낚시 등 다양한 방안들을 실험해 보았지만 한꺼번에 많은 관광객들이 즐기기 어려운 이유 등으로 인해 대책으로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얼음 대낚시는 설치도 쉽고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어 얼음낚시의 새로운 대책으로 떠올랐다.

얼음낚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이날 새로 선보인 얼음 대낚시터에 몰리면서 장사진을 이뤘다.

군은 2월초부터 반짝 한파로 인해 얼음 강도가 강해지면 얼음 낚시터 재개장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얼음낚시터는 중단됐지만 수상낚시터와 맨손잡기, 눈썰매 등 얼음낚시를 제외한 대부분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 30일부터 300여 명이 입장 가능한 수상낚시터를 1200여명이 동시 입장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해 운영 중이다. 수상낚시터에 조명시설을 설치해 밤낚시도 가능하도록 했다.

화천군은 지난 27일 개막한 다음날부터 이상고온으로 얼음 강도가 약해져 얼음낚시터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군 관계자는 "기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축제를 운영하고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매일 회의를 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 정상태 경감 헌혈유공자 명예장 수여

해양경찰청은 경비국에서 근무하는 정상태(51) 경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자 명예장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헌혈유공자 명예장은 대한적십자사가 100회 이상 헌혈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과 증서다.

육군에서 23년간 복무 후 2014년 해양경찰 항공 경위로 들어온 정 경감은 1990년 첫 헌혈을 시작, 30년간 100회 헌혈을 했다.

정 경감은 지난 2016년 11월 26일에는 강원 춘천시 호반테니스장에서 운동 중 쓰러진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을 통해 구한 공로로 강원도지사로부터 하트세이버 증서를 수여받기도 했다.

정 경감은 지난해 10월에는 안구와 인체조직을 필요한 환자에게 기증하겠다는 장기기증을 서약하기도 했다.

정 경감은 "헌혈인구가 매년 감소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헌혈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사바늘이 들어가는 '따끔'거리는 잠깐의 시간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기쁘다"고 덧붙였다.

뉴스1

'청년기본소득' 대상 경기 청년 80% 만족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청년기본소득 신청자 중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한 청년 3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분기에 비해 3분기에 만족도가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감소 저지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연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기본소득의 1년 회고, 긍정적 정책효과가 보이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7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1차 조사(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12만4335명) 중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한 청년 3500명)에 이어 11월 2차 조사(1분기 신청자(12만4335명) 중 1·2·3분기 모두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한 청년 3500명)를 실시했다.

만족도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 설문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1.6%p다.

조사 결과, 지역화폐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82.7%로 1차(80.6%) 때 보다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지역화폐 사용에 만족하는 주요 이유는 기본소득의 구성요소인 보편성, 현금성, 무조건성에 부합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청년의 65.4%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으로 '삶에 유익한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1차 조사(60.3%)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5.1%p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 외 지역 청년들(만 24세)을 비교집단으로 하고 실시한 사전/사후 패널조사에서도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경기도 청년들이 행복감, 건강과 식생활, 인식과 태도, 꿈-자본, 경제활동 등에서 사전 대비 사후에, 비교집단에 비해 더 행복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함 정도'는 비교집단(59.0점) 보다 높은 63.5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 청년 33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조사(FGI; 집중집단면접)에서도 '남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서 삶의 만족도가 개선되었다' '한 줄기 빛이었다' 등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조사 결과,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과 깊은 이해가 동반될수록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지역화폐 지급은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추세 저지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경기도 기본소득정책은 시작단계이지만 만족도가 매우 높고 긍정적 정책효과도 표출되고 있으므로 정책 안정화와 장기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겨울에 봄꽃잔치 29일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포항시청 뒷편 야산에 봄의 전령사인 매화꽃이 꽃망울을 활짝 터뜨리고 있다.

전북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지원

전북지방환경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술지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3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 사업은 소규모 협의사업장 중 토석채취, 산지 태양광 사업장 등 환경영향 우려가 큰 사업장이다.

지원방법은 사업시행초기부터 관련규정 및 저감시설 설치 방법 등을 안내하고 해빙기·장마철 전 등 시기별로 협의내용의 적기 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기술지원 과정에서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이행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평가대행업체가 착공시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주기적으로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컨설팅 및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자율점검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 시행초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내용의 이해를 도와 협의내용 이행률을 높일 계획이다"며 사업장의 자발적인 관리 유도로 환경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인천시 직결 운행, 국토부 건의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수인선(인천~수원)과 분당선(수원~왕십리)을 환승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올 1월 완료한 수인선 분당선·서울4호선 직결 운행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인선은 당초 분당선과 직접 연결 운행을 전제로 건설돼 별도 비용 및 추가 건설 없이 직접 연결 운행이 가능하다.

신종코로나로 현대차 부품공급 차질 우려

현대자동차에 와이어링(전선 제품)을 공급하는 유라코프레이션 중국 공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사망자 발생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국내 완성차 생산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31일 오후 울산공장 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 1차 실무협의를 갖고 부품 공급 중단에 따른 특근중단과 휴업 등 다양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부품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재고가 모두 소진되는 4일 이후는 생산라인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

뉴스1